

보도시점 2024. 3. 12.(화) 15:00 배포 2024. 3. 12.(화) 08:00

방위사업청, 미래 무기체계에 수소연료전지 적용

- 국방 분야 ‘수소연료전지 추진체계 실증과제 점검회의’ 개최 -

방위사업청(청장 석종건)은 미래 무기체계에 수소연료전지 적용을 위해 ‘수소연료전지 추진체계 실증과제 점검회의’를 3월 12일(화) 정부과천청사(국제회의실)에서 개최했다.

행사 개요

◆ 행사명 : 수소연료전지 추진체계 실증과제 점검회의

◆ 일 시/장소 : '24.3.12.(화) 14:00, 정부과천청사(국제회의실)

◆ 발표/토의과제

(1부) 수소연료전지 추진체계 확보 로드맵, 전투차량/장갑차 수소연료전지 적용 실증과제 등

(2부) 수소연료전지 관련 주요 정부과제, 함정분야 수소연료전지 적용 방안 등

방위사업청은 정부의 탄소중립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의 우수한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의 新동력 확보를 추진 중이며,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산학연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관련 정부 과제 및 기술개발 진행현황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.

행사는 조현기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, 국방과학연구소,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,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및 과제 관련 민간 연구소와 방산업체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.

이번 회의는 기동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작전지속능력 확보를 위한 군 인프라 구축, 드론 및 함정 등 수소연료전지의 국방분야 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.

미래의 기동무기체계는 지능화, 무인화, 유·무인복합운용, 네트워크화 등의 첨단기술 적용과 더불어 저소음, 저발열의 고성능 동력장치의 확보가 핵심적인 요소로서, 수소연료전지의 군 활용은 미래 무기체계 진화를 위한 혁신적인 원동력이 될 것이다.

세계 최상위권에 있는 수소전기차 분야의 국내 민간기술을 활용하여 기동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'22년부터 전투차량과 장갑차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가 진행 중이며, '25~'26년에는 수소연료전지를 실장비에 탑재하여 입증한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. 이를 마중물 삼아 국방 분야에 친환경 수소를 더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적인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

방위사업청 조현기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“수소연료전지 실증과제로 군 활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,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세계 최상위권 수소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확대를 위한 협업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군, 연구기관, 업체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수소연료전지 등 새로운 동력체계 확보와 수소의 국방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 <끝>

담당 부서	기동사업부 전차사업팀	책임자	국(부) 장	조훈희 (02-2079-5300)
		담당자	과(팀) 장	권창모 (02-2079-5310)